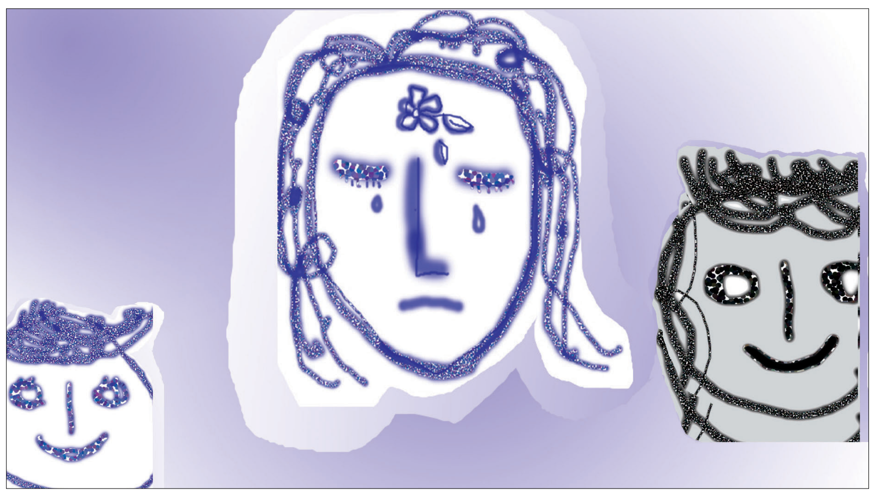
이기는 삶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할까?

여자들은 서로간의 대화와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
남자들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잘나 보이게 하려고 크게 과장하고 허풍을 섞어 거짓말을 한다.

많은 기관으로부터 남녀의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여자가 남자 보다 더 자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 할 때조차도 머뭇거리고 멈추는 일이 여자들의 두 배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뭔가를 꾸며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머뭇거리고 멈추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자는 100개의 단어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최소한 3번 이상 멈추는 반면에, 여자는 단 두 번의 멈춤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것일까?' 또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화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분 동안에 최소한 1회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여자들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대화를,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영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도 보았는데 그 영화가 아주 잘된 작품'이라는 식의 거짓말을 한다.

반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대화에서조차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잘나 보이게 하려고 크게 과장하고 허풍을 섞어 거짓말을 한다. 즉 남자들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겨우 노래 한두 곡 정도의 기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밴드가 레코드 전속계약을 맺었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국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남자는 자기 자랑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여자는 상대방에게 맞장구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근원적으로 남녀의 거짓말에 대한 고증을 해보면 우선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사람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이다. 강한 자가 무리를 지배한다. 경쟁자와 싸워서 이긴 승자는 포효하며 자신의 위용을 자랑한다. 남자들의 허세와 허풍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시대에 약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강자에게 잘 보여서 강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과 또는 강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습득되어진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당연히 남자보다 거짓말에서는 한 수 위가 되는 것이다.

남자는 매사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여자는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여자는 상대를 설득하는 언어구사 능력이 탁월하다. 남녀간에 언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여자는 앞뒤가 조리 있고 논리 정연하다. 시시콜콜한 과거지사까지 들추어 내며 남자의 약점을 공략한다. 남자는 몇 마디 주고받다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그만 해!, 그만하라니깐!, 시끄러워!" 하는 식의 고함만 지를 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도저히 말로써는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어리숙한 남자들이여! 여자와의 명분 없는 말싸움은 아예 하지를 말지니라.*

속담 속의 영생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 인과응보를 쉽게 표현한 속담이다.

승리제단은 인과법칙을 진리라고 가르친다. 즉 죽을 짓을 하면 죽고, 영생할 짓을 하면 영생한다고 말한다. 영생할 짓을 하지도 않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사기이고 기만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성경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요 배가 달리면 배나무이다.

불경을 읽어보면 불교의 근본 교리 또한 인과법칙임을 알 수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6000 년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의 형상으로 화하여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인과법칙과 부합한다. 반면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을 믿으며 '나'라는 마귀의 주체의식에 이끌려 마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 죽음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었음을 알고 영생의 확신 속에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있다. 2015년부터라도 죽음의 콩을 뿌리지 말고 영생의 콩을 뿌리자! 진짜 하나님 되는 비결을 모든 경전과 과학으로 짝을 맞추어 알려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있는 곳! 실천하여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곳! 복 있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이곳 승리제단에 오셔서 알아보시라!*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루기

까다로운 접미사 띄어쓰기

우리말에서 '접미사'는 어떤 단어(체언)의 끝에 붙어 뜻을 첨가하여,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구실을 한다. '어미'는 어떤 단어의 '어간'에 붙는다는 점에서 단어의 '끝'에 붙는 접미사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접미사는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체언에 붙는 말이고,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 붙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접미사는 단어의 끝에 붙여 쓰게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 지금부터 그러한 경우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 붙여 쓰면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의존 명사로 인정되는 것들은 띄어 쓴다.

예) 문명인 간(문명인 사이) / 어떻든지 간에 / 삼십이 조(條)로 된 법률 / 20세기 초(의존 명사로 인정)

두 번째, 조사 다음에 오는 '하다', '시키다', '당하다' 또는 '받다' 등은 접미사가 아니라 동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독서하다(접미사), 진행시키다(접미사), 결박당하다(접미사), 오해받다(접미사) / 독서를 하다(동사), 진행을 시키다(동사), 결박을 당하다(동사), 오해를 받다(동사)

세 번째, 명사 아래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됨을 나타내는 접미사 '화(化)' 아래에 다시 '하다'나 '시키다' 또는 '되다'가 붙을 때에 붙여 쓰지만 이같이 붙여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오면 띄어 쓴다.

예) 대중화하다, 산성화시키다, 산성화되다 / 재미있는 말 하시오. / 남의 이야기하기는 쉽다. / 띄어쓰기 공부 하기가 재미있다. / 좋은 일 하였구나.

네 번째, 명사나 명사의 성질을 가진 말이 목적어로 쓰일 때, 그 목적어의 '를'이나 '을'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다음 말을 띄어 쓴다. 단, 이 경우에도 명사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런 사정 하러 갔었다.(O) / 그런 사정을 하러 갔었다.(O) / 사정 하러 갔었다.(X)*

이승우 기자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왜 모든 인류는 하나입니까?

Why all mankind is one?

なぜ，すべての人類は一つですか？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We have the same ancestor,

私たちは，同じ先祖を持っており

●우리들의 첫 번째 조상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and because our first parents is Adam and Eve.

私たちの最初の先祖が，アダムとイブだからです．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계승자입니다.

All mankind is a successor being of Adam and Eve.

すべての人類は，アダムとイブの子孫です．

● 그래서 인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So mankind is not separate, but one.

だから，人類は分離されたものではなく一つです．

●성경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행 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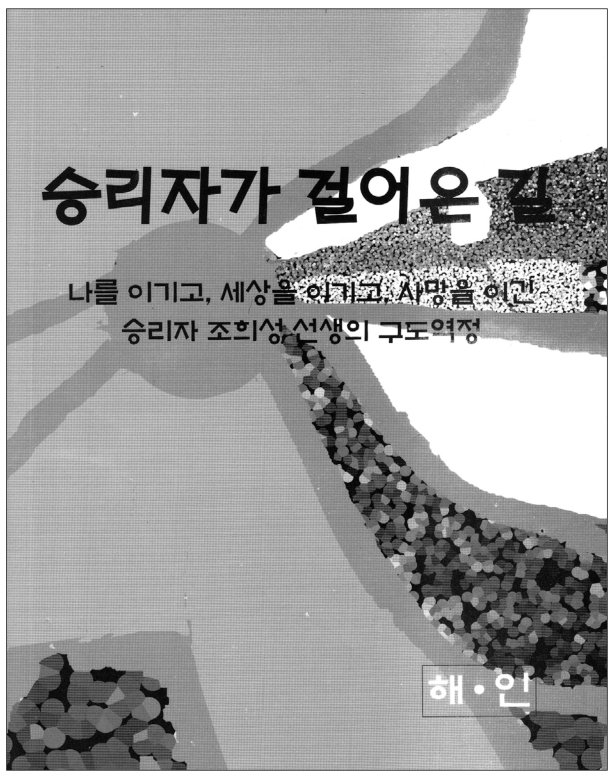
The Bible says;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 of men to dwell on all the face of the earth(Acts 17:26)"

聖書の御言葉;「人類のすべての民族を一つの血統で作り，地の全面に住まわせ(行17:26)

신간 안내

승리자가 걸어온 길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정가: 2,000원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걸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시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